

제 1 교시

2022학년도 임권의 하프 모의고사 5회차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틀리고 고치는 훈련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으면서 의심할 줄 모르는 것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그들이 ㉠ 평소 많이 읽고 뜻을 터득하는 데에만 힘써 자세히 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 쫓기듯 바빠 책을 많이 읽는 데에만 버릇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점을 경계하여 위와 같은 버릇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별도로 독서의 체계를 세워 ㉢ 자신에게 적합한 책 중에서 더욱 절실하고도 긴요한 것을 택해야 한다. 또한 책을 볼 때에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하루에 우선 한두 단락을 보고 그 부분의 이해가 끝나면 다른 단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 책 한 권이 다 끝나거든 다른 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때 무엇보다 먼저 요청되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우고 기운을 고르게 하여 숙독(熟讀), 숙고(熟考)해서 한 글자 한 구절까지 다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 여러 학자들의 주석(註釋)을 하나하나 독파한 다음, 그들의 ㉤ 옳고 그름을 비교하여 성현들이 말씀하신 본뜻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뜻을 이미 이해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반복 음미하여 그 의미와 이치를 몸으로 체득해야만 그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윤화정(尹和靖)의 문인들이 자기 스승을 칭찬하기를 ‘대단하시다. 성현들의 말씀과 육경(六經)의 내용을 환히 이해하고 마음 깊이 터득하시어 마치 자신의 말을 하는 것같이 하시는구나’ 하였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글 읽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처음 글을 읽을 때는 전혀 의심이 없었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나중에 가서는 구절마다 의심스러워진다. 이러한 과정을 한 번 거쳐야만 의심이 점차 풀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해하여 전혀 의심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부했다고 할 수 있다.

- 이이, 「성학집요」 -

1. ㉠~㉤ 중, <보기>에 나타난 정약용의 독서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다산 정약용은 식견을 새로 여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맹목적인 독서를 혐오하였다. 정약용은 질서(疾書)의 독서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 빨리 메모했던 독서 방법이다. 그는 질서의 핵심이 의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의심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 윗글에 나타난 독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을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단계	독서 전략
읽기 전	· 잘못된 독서 태도를 경계하여 자신에게 맞는 독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①
읽기 중	· 글의 구조를 통해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 ... ②
	· 자신의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의 분량을 조절하여 읽어야 한다. .... ③
읽기 후	·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 ④
	· 내용을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깨달은 바를 내면화해야 한다. .... ⑤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은 도시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니께 그냥 드셔.”  
 했지만 김도 찢리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김도 요즘은 매일같이 농약에 행구다시피 한 물건을 서울 장사꾼들에게 넘겨왔던 것이다. 물론 풋고추를 밭에 세워놓고 불히는 약만큼 독성이 강한 건 아니었다. 다만 물을 팔백 배 가량 타서 써야 할 마릭스 유제를 사백 배 정도로 섞어 썼을 따름이었다.

[A] 김은 에멜무지로 같았던 김칫거리가 때를 잘 타 이 달은 별이가 괜찮았다. 열무 갈아 한 뭇에 십여만 원 다발을 만져보기는 처음이던 것이다. 그러나 요새처럼 김칫거리 푸성귀가 고깃값보다 셀 때 그만한 재미도 못 본다면, 어느 왕조에 밥상에서 도막반찬 구경을 해볼 터인가.

그는 매일 아침 이슬이 자면 열무와 배추밭에 농약을 질게 끼었고 진땀물이 깨끗이 쏟아진 저녁나절마다 삼백 단씩 뽑아 밭에 났다가, 새벽에 들이닿는 경동시장 상인들에게 맞돈을 받으며 넘겨주곤 했다.

겉보매가 깨끗하다는 이유로 두어 번 행구어 거의 날로 먹다시피해온 김칫거리에 농약을 퍼붓는 것을 김도 싸가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허지만 구태여 없어진 지 오래인 양심이란 것을 뒤져낼 건더기는 없다더라도, 어찌다가 TV에서 농약 공해가 어떻다고 떠드는 소리가 귓결에 닿으면 한참씩이나 뒷맛이 개운찮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면서도 김은 ㉠ 공연히 자기만 주눅들어할 까닭이 없다고 여겼다.

김은 농약 우린 물을 김칫국이랍시고 먹는 도시 사람들에게는 책임의 절반을 물어야 한다고 믿었다. 배춧잎새에 벌레 지나간 자국이 뿔려 있거나 진땀물이 붙은 건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먹는 사람들은 벌레 기미가 있을 듯한 채소라면 진저리를 쳐가며 제쳐놓고 매끈한 것만 첫째로 여긴다. 장사꾼들도 양젓물로 씻었건, 농약에서 건졌건, 아랑곳없이 물건이 깨끗한 것만 찾는다. 한 푼이라도 더 벌자면 농사꾼도 장사꾼 눈에 드는, 아니 직접 먹는 실수요자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추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어수룩하게 안 보이는 사람들의 먼 장래 건강까지 걱정하며 농약, 극약을 피해 영농한다면, 결국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만 실농이 있을 따름이었다.

“㉡ 내남적웁이\* 농약 안 쓰구 농사지을 수는 읍으니께…….”  
 계장이 물러앉았다.

“계, 나두 워짜다가 서울 측은집이나 당질네를 가면 앉자마자 으레 허느니 그 소리라. 벌레나 진디 읍는 푸성가리는 사먹지 마라 — 이게 노래라구. 그러면 벌레먹은 푸성가리는 농약이 있어두 순박헌 농민이라 양심상 안 뿌린 게냐구 묻더먼…… 계, 이 한심헌 세상에 두 심 쓸 저들이 워디 있느냐구, 농약이 있어두 딴 일에 치여 바빠서 못 찢었은 게니 그런 늑만 골라서 사먹으라구 이르는데, 그래두 말 안 듣데. 송장도 먹구 죽은 송장은 빛깔이 좋다나 워뎡다나 허면서, 보기 좋은 게 먹기두 좋다는 디는 못 말리겄더라구…….”

고의 말을 받아 뒤는 김이 이었다.  
 “우리나 서울 것들이나 서루 저기허기는 매일반인겨. 서루다

다 석여먹잖으면 못 살게 마련된 세상인디, 촌사람만 독약 쓰지 말라는 법이 있담? 지방은 사람 사람이 먹구 쓰는 게 죄 약이 아니면 독으루 알구 살어두 저기헌 세상인디, 새뽕 빠지게 가로왈 세로왈 헐 게 뭐라나”

“허기는 그려. 뭐 한 가지 맘놓구 쓸 게 읍으니께. 근래 근대화 바람에 일어난 공장에서 맨든 것이면 싸구려루 내던지는 수출품은 안 그래두, 내국인헌티 팔아먹는 건 공해 아닌게 읍거든. ㉢ 특히 농촌으로 흘러오는 계면 열에 일고여덟이 불량제품이구 가짜란 말여.”

황의 말을 덮으면서 김이 한마디 보냈다.  
 “물건뿐이담유. 내 말이 저기헌 것이, ㉣ 요새 테레비 한 가지만 여겨보라구. 활동사진이구 굿이구 간에 여편네들이 저기헐 게 있다? 자식들이 한 가지나 배울 게 있다? 공해가 벨 것 아닌겨. 사람 사는 디 이롭잖은 건 죄 공해거든. 일 년 열두 달 테레비 모셔봤자 눈깔에 생혈이나 오르지 소용있담? 여편네 밤마다 마실 뎡기때 녀의 테레비 앞에 턱살 쳐들구 사는 꼴 안 보자구, 송년 곡석 돈 사가며 들여놓구 인저는 후회가 막급일세. ㉤ 신문을 보자면 열통이 터지구, 무슨 들어볼 만한 소식이나 읍으까 허구 워짜다가 틀어보면 네미— 사람이 얼마가 죽구 얼마가 도적질했다는 얘기뿐이지, ㉥ 연속극인지 급살인지는 늑은이구 밤쇠이구 몽땅 한자리에 낫놓구 앉은 디서 허구헌 날 늑 아니면 품앗이구, 흘앗이 아니면 생뽕이 천지\*니, 경향간에 공해버텨 평준화돼 가지구실 랑…….”

- 이문구, 「우리 동네 황씨」 -

\* 내남적웁이 : 너나없이, 누구나.  
 \* 늑~천지 : 드라마 속 내용이 윤리적이지 못함을 비판하는 말.

3. [A]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인물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의 행위와 심리를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다.
  - ④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사물의 섬세한 묘사로 독자의 상상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4. ㉠에 드러난 인물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야 한다.
  - ② 농민과 도시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③ 도시 사람들에 비해 농민들이 더 우월하다.
  - ④ 장사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따진다.

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리 동네 황씨」에는 산업화로 유입된 도시 문화를 접하면서 겪는 농촌 사회의 변화가 담겨져 있다.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대중적 문화가 농촌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문화를 밀어내면서, 이기적이고 물질중심적인 인간으로 변모되는 농민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산업 사회에서 농촌이 도시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공간인 동시에 도시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을 소비하는 공간이 되면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 ① ㉠: 농약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쓰는 농민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
- ② ㉡: 농촌으로 들어오는 공산품이 대부분 불량품이라는 말에는 농민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이 담겨 있어.
- ③ ㉢: 배울 것 하나 없는 텔레비전이라는 말을 통해,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드러나고 있어.
- ④ ㉣: 도시 소식은 흉악한 것들이 많다는 말을 통해, 삭막한 도시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인정 넘치는 농촌 문화를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 농민들이 낫 놓고 연속극에 빠져 있는 상황을 통해 도시 문화가 농촌의 건강한 문화를 해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목장의 소가 인근 옥수수 밭의 농작물을 훼손하여 목장 주인과 농부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울타리를 목장 주변에 쳐야 할까 아니면 옥수수 밭 주변에 쳐야 할까? 그리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또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당사자들 간의 적절한 타협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정부 당국의 강제적 ㉡ 개입이 필요할까?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의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학의 이론들은 이들 법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한 예로 교섭 이론을 들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거래 당사자끼리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교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적 잉여’를 ㉢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교섭은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경제학에서 ‘외부성’이란 의도성이 없음에도 타인에게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흡연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과수원이 주변 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즈 교수는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총칭하는 의미로 ‘거래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섭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탐색하는 데 드는 비용,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즈 교수는 거래 비용이 0인 경우, 법에 의지하여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적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거래 비용은 0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가지며, 거래 비용의 수준에 따라 교섭이 가능한지 혹은 교섭이 어려워 다른 대체적 수단이 필요한지가 결정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 비용의 범위를 교섭 영역과 비교섭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거래 비용의 역치가 존재한다. 여기서 ‘거래 비용의 역치’란 교섭이 가능한 거래 비용의 최대치로, 이 역치보다 거래 비용이 적으면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과 같은 강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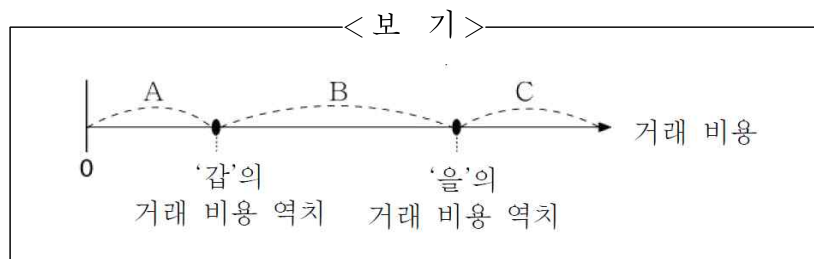
그리고 이 역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 역치를 갖는 사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도 교섭이 성공할 것으로 믿을 것이다. 반면 낮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 역치를 갖는 사람은 보다 낮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그는 보다 많은 상황에서 법의 개입을 ㉣ 선호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학의 원리는 법이나 정책의 방향을 ㉣ 설정하고 법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률가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사적 교섭을 ㉡ 저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을 구성한다.’라는 ‘규범적 코즈의 정리’나 ‘사적 합의의 실패에 의한 손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구성한다.’라는 ‘규범적 흡스의 정리’는 법률가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제학의 원리는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
- ② 사람에 따라 거래 비용의 역치는 다를 수 있다.
- ③ 거래 비용은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 ④ 외적 개입이 없다면 거래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 ⑤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교섭은 거래 쌍방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7. 윗글로 미루어 볼 때, ‘외적 개입 여부’에 대해 ‘갑’과 ‘을’이 동일한 의견을 보일 구간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A
- ② B
- ③ C
- ④ A, C
- ⑤ B, C

8. <보기>는 ㉠의 문제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소들의 침입에 의한 농부의 연간 손해는 20만 원이다. 목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는 연간 비용은 16만 원이다. 옥수수 밭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는 연간 비용은 10만 원이다. 이 지역은 이러한 분쟁에 대해 방목제한제(농부의 권리)를 채택했기 때문에, 목장주가 자신의 목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관리해야 한다. 이에 목장주는 농부에게 옥수수 밭 주위에 울타리를 치게 해 주면 그 차액으로 인한 이익 6만 원의 1/2인 3만 원과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는 비용 10만 원을 합해 농부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이 교섭에 드는 거래 비용은 1만 원이었으므로 이 교섭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① '협력적 잉여'보다 거래 비용이 더 컸다면 교섭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군.
- ② 법적인 해결보다 교섭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이 지역에서 채택한 방목제한제는 '규범적 흙스의 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군.
- ④ 농부나 목장주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⑤ '규범적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방목제한제'는 목장주가 교섭보다는 법적 강제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겠군.

9. ㉠~㉣를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를 해 보았다. 단어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국제기구는 국가 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② ㉡: 개인들의 노력이 합쳐지면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다.
- ③ ㉢: 기름 값이 오르면서 소형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 ④ ㉣: 여러 회사 중 우리 회사가 수도권 지역 사업자로 설정되었다.
- ⑤ ㉤: 이기적인 욕망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어리고 성긴 가지 너를 믿지 아녜더니  
 눈 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축(燭)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 암향(暗香)\*조차 부동(浮動)\*  
 터라

㉡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바람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侵擄)한다  
 아무리 얼우려한들 ㉢ 봄뜻이야 앗을소냐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건곤(乾坤)이 ㉣ 눈이거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패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 안민영, 「매화사」 -

\* 암향: 그윽히 풍겨오는 향기.

\* 부동: 떠서 움직임.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

\* 아치고절: 우아하고 높은 절개.

(나)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新菼濁酒如渾白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大碗麥飯高一尺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飯罷取枷登場立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雙肩漆澤翻日赤
응혜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呼邪作聲舉趾齊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須臾麥穗都狼藉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雜歌互答聲轉高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但見屋角紛飛麥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觀其氣色樂莫樂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了不以心爲形役

㉣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 정약용, 「보리타작」 -

(다)

담양에는 대나무 숲이 많다. 대숲은 들판 여기저기 들어서 있다. 집 한 채를 품고 있는 숲도 있고 마을을 품고 있는 숲도 있다. 멀리서 보면 담양의 대숲은 들판에 흩어진 섬과 같다. 봄의 대숲은 연두색이다.

대숲은 자연림이지만 활엽수림처럼 자유의 산만함이 없다. 대숲은 가지런하고 단정하다. 봄의 대숲은 자작나무숲이나 오리나무숲처럼 생명의 기쁨으로 자지러지지 않고, 여름의 대숲은 다른 활엽수림처럼 비린내 나는 습기를 내뿜지 않는다. 대숲은 늘 스스로 서늘하고, 잘 말라서 질퍽거리지 않는다. 대숲은 늘 꿈속처럼 어둑어둑하다. 이것이 몽밀(蒙密)이다. 대나무로는 무기도 만들고 악기도 만든다. 죽창과 피리가 모두 대나무다. 대나무로는 연장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사군자도 친다. 세상을 깨부수고 바꾸려는 사람들은 대나무

숲으로 와서 무기를 구했고, 세상을 버리고 숨으려는 사람들은 대나무 숲으로 돌아와 누웠다. 그래서 대나무 숲은 세상으로 나가는 전진기지이며 세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후방의 쓸쓸한 **낙원**이다. 대나무 숲은 전투적 이념의 절정이며 은둔의 맨 뒷 전인 것이다.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대나무는 죽순이 나와서 50일 안에 다 자라버린다. 더 이상은 자라지 않고 두꺼워지지도 않고, 다만 단단해진다. 대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 왕대는 80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운다. 눈이 내리듯이 흰 꽃이 핀다. 꽃이 피고 나면 대나무는 모조리 죽는다. 꽃 속으로 모든 힘이 다 들어가서 대나무는 더 살 수가 없다. 대꽃은 흥흥하다. 담양의 노인들은 “대꽃이 피면 전쟁이 난다.”고 말한다. 대나무 숲은 삶의 모든 국면을 다 끌어안고서도, 그 성질은 차고 단단하다. 미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의 번뇌를 죽순이 다스린다고 옛 의학 서적에는 적혀 있다. 그 임상 효과가 어찌되었건 간에, 대숲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만하다. 대나무 숲의 배후는 복잡적이다. 무기와 악기, 싸움과 안식이 모두 이 숲 속에 있다. 담양 들판에서는 이 숲이 사람의 마을들을 품고 있다.  
- 김훈, 「자전거 여행」 중 -

10.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를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 ④ 관조적인 태도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 ⑤ 중심 소재에서 긍정적 가치를 이끌어 내고 있다.

11. (가)와 (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상반된 의미의 시어를 대비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감각적인 표현과 간결한 문체를 통해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④ (가)와 (다)에서는 대상의 생태적 특성을 부각시켜 인간의 삶과 연관시키고 있다.
- ⑤ (가)와 (다)에서는 모두 상승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조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2. (나)와 (다)의 **낙원**에 내포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시련 속에서 신념을 다지는 공간이다.
- ②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이다.
- ③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이다.
- ④ 현실에서의 번뇌를 넘어선 초월적 공간이다.
- 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수양의 공간이다.

13. (나)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보리밥**  꽃나물을 알마초 머근 後(후)에  
바싹긋  물가의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 윤선도, 「만흥(漫興)」 중에서 -

- ① (나)와 <보기>의 ‘보리밥’은 모두 현실에 만족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나)의 ‘마당’은 노동의 공간이고, <보기>의 ‘물가’는 풍류의 공간이다.
- ③ (나)의 ‘노랫가락’에서는 흥겨움이, <보기>의 ‘노니노라’에서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 ④ (나)의 ‘벼슬길’과 <보기>의 ‘너나쁜 일’은 모두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
- ⑤ (나)의 ‘헤매고 있으리요’와 <보기>의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는 화자의 생각을 설의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다.
- ② ㉡: 매화의 향기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③ ㉢: 매화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이다.
- ④ ㉣: 화자가 소망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 ⑤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이러스는 보통 세균의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단백질과 핵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할 때는 숙주\* 세포 내의 효소와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물질대사를 하고 증식을 하는 등 생물학적 특성을 보인다.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다른 생물을 이용하는 데만 그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생'이라는 바이러스의 생존 방식은 필연적으로 숙주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나)

바이러스는 어떠한 방법으로 숙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일까? 바이러스는 먼저 자신의 숙주가 되는 미생물, 식물, 동물 등의 세포 표면에 달라붙어 유전 물질을 세포 내로 들여보낸다. 이렇게 세포 내로 들어간 유전 물질은 숙주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구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낸다. 바이러스는 이 효소들을 이용하여 유전 물질을 대량 복제하며, 복제된 유전 물질로부터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을 합성한다. 이런 방식으로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단백질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조립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완성된다. 이때 하나의 숙주 세포에서 복제되는 바이러스 수는 엄청나다.

(다)

이렇게 증식한 바이러스들은 숙주 세포를 뚫고 밖으로 나와 주변의 다른 숙주 세포들로 다시 침투한다. 물론 이때 기존의 숙주 세포는 죽는다. 만일 숙주가 사람이라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많은 수의 숙주 세포가 파괴되어 수두, 유행성 눈병, 독감, 에이즈 등 다양한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리게 된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세균에 의한 질병과 달리 치료약이 별로 없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려면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하는데 숙주 세포를 그대로 둔 채 바이러스만 죽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라)

그러나 최근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생물체의 유용한 DNA\*를 유전자 운반체에 끼워 넣어 재조합 DNA를 만든 후 대장균과 같은 숙주 세포에 삽입하여 유용한 유전자를 합성하는 것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운반체로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이러스의 일종인 '박테리오파지'이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의 세포 표면에 달라붙은 다음 자신의 유전 물질을 세균 세포 내로 들여보내 대량으로 증식한 뒤 결국 숙주를 파괴하고 나오게 된다.

(마)

① 현대 의학은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인슐린을 얻기 위해 이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다. 박테리오파지에 인슐린 합성에 필요한 DNA를 끼워 넣어 이를 대장균에 집어 넣어 복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많은 양의 인슐린을 얻어내 인슐린 주사를 만든다. 인슐린 주사는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하는 정도이긴 하지만, 동물에게서 인슐린을 얻어내던 기존의 치료 방식에 비하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주원인이고 숙주 세포를 파괴하는 등 부정적인 존재로만 여겨지던 바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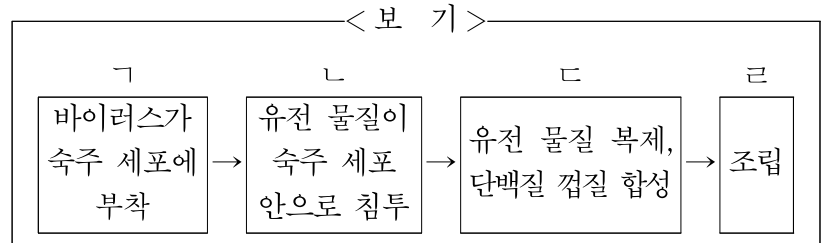
스가 현대 의학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 숙주: 기생 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생명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생물.
- \* DNA: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 안 염색체의 중요 성분을 이루는 유전자 본체.

1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바이러스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라): 바이러스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바이러스가 지닌 다양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16. <보기>를 참고로 윗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ㄱ~ㄹ에 활용되는 유전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②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할 때, ㄴ의 과정까지 바이러스는 유전자 운반체 역할을 한다.
- ③ ㄴ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만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ㄷ에서 숙주의 단백질 합성 기구는 바이러스에 힘을 가하여 대량 증식을 일으키게 한다.
- ⑤ ㄹ은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단백질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17. ㉠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할 때 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당뇨병은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 유전자 이상이 생겨 인슐린을 충분히 합성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걸리게 되는 병이다. 그러므로 당뇨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이상이 생긴 유전자 대신 인슐린을 원활하게 합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췌장의 베타 세포에 주입해 주어야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

- ① 바이러스를 이용한 현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아직까지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군.
- ② 인슐린 합성의 양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바이러스를 활용한 당뇨병 치료 연구의 궁극적인 과제로군.
- ③ 박테리오파지로부터 숙주 세포에 해당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겠군.
- ④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당뇨병 치료의 효과를 얻으려면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숙주 세균을 찾아야겠군.
- ⑤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DNA를 재조합하는 것이 급선무로군.

이 면은 여백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